

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동향

□ 교토의정서 채택이후 전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을 통한 이산화탄소 거래량 및 거래 규모는 증가하고 있음

□ 미국 및 영국을 중심으로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, 우리나라 역시 탄소배출권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

□ **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(Kyoto Protocol) 채택 이후 탄소배출권 시장은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음**

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럽연합 내에 7개 등 총 10개의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는데, 이산화탄소 거래량은 2004년 말 1억 2,600백만 톤에서 2007년 말 기준 29억 8,300만톤으로 약 23배 증가하였으며, 거래 규모는 2004년 말 5억 달러 수준에서 2007년 말 640억 달러 규모약 128배 성장하였음

— EU ETS(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)는 대표적인 허용량 거래시장(allowance-based markets)[1]으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 모두 적용되고 있으며, 2007년 허용량 거래시장을 통해서는 21억 9백만톤의 이산화탄소가 거래되고 있으며, 거래규모는 약 50억 달러에 달함

- 최근 EU ETS의 범위를 화학물질과 암모니아와 같은 새로운 영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음

— 한편 프로젝트 거래시장(project-based markets)[2]의 90% 이상은 청정개발체계(Clean Development Mechanism: CDM)[3]와 연관되어 있는데, 2007년 프로젝트 시장을 통해서 8억 7,400만톤의 이산화탄소가 거래되었으며, 거래규모는 136억 달러에 달하여 점차 개발도상국의 CDM 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

- CDM 거래에서 2차거래(secondary trading)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4%에서 2007년 약 35% 수준으로 증가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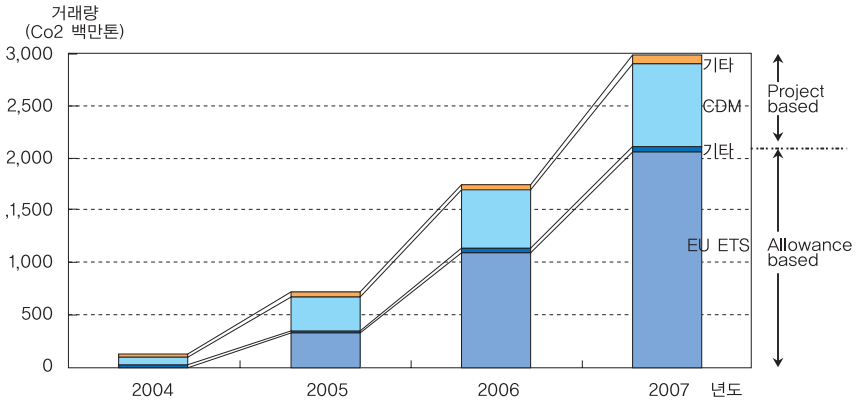
1) 허용량 거래시장(allowance-based market)은 교토의정서 내용에 따라 각 국가나 기업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의 범위 안에서 잉여량 및 부족분을 거래하는 시장임

2) 프로젝트 거래시장(project-based market)은 중국과 같은 개도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출량 감소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량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임

3) 교토메커니즘 중 청정개발체계(CDM: Clean Development Mechanism)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그 실적을 국제탄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



전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현황



거래량 (단위: 10억 달러)	허용량 거래시장 (allowance-based market)	프로젝트 거래시장 (project-based market)	전체
2004	-	0.5	0.5
2005	8.0	2.9	10.9
2006	24.7	6.5	31.2
2007	50.4	13.6	64.0

주 : World Bank

□ **또한 미국 동부 10개 주로 결성된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(The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)는 2009년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임**

— 2008년 9월 25일 미국 최초로 실시된 온실가스 경매에서 1,250여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3,850만 달러에 거래되었으며, 경매 수익은 이산화탄소 배출권 비율에 따라 나뉘어져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사용될 예정임

- 내년 1월부터 유럽과 같은 캡 앤드 트레이드(Cap and Trade) 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, 가입된 주는 배출 상한선(Cap)을 초과하면 돈을 지불하고 배출권을 구입해야함

□ **한편 영국은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CDM의 주요한 투자자로 2007년 CDM의 약 59%를 차지하고 있으며, 탄소선물계약은 유럽기후거래소(ECX)를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음**

— 탄소배출권 시장은 재생에너지 산업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으며, 런던은 관련 시장에 자금을 제공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

- 런던 증권거래소가 운영하는 대체투자시장인 AIM(Alternative Investment Market)에 2007년 말까지 69개의 재생에너지 기업이 참가할 예정임



□ **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거래 활성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탄소배출권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**

— 2007년 10월 환경부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'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 · 운영에 관한 협력 협약서(MOU)' 체결 및 탄소배출권 거래 및 투자전문회사인 '한국탄소금융주식회사(KCF)' 출범은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및 녹생금융의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

- 더불어 탄소시장에 대한 인식 전환과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이 시급함

연구원 김규림